한국지리 총평

작년 수능 스타일을 이어가는데, 기후 킬러도 빠지고 여러모로 다운그레이드 버전 느낌이다.
6모라 두 문제 틀려도 1등급이 나올 것은 같은데, 수능이었으면 킬러가 없어서 좀 위험했을 시험지 같다.
식생이 정말 복병인데 막상 정답도 5번이고 브레이크를 건 느낌. 이렇듯 안 나온 부분을 툭툭 찌른다.
영동고속도로가 지나는지를 물어보는 것도 좀 수능 때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게 한다..
20번에 무슨 윤리 문제마냥 유형을 가져왔는데 수능에는 작년 벤 다이어그램처럼 강화돼서 나올지? 아마 국토 개발이랑 엮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전반적으로 신유형의 시도가 많지도 않고 참신하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다.
한국지리 신유형 수난사는 언제까지 이어질 지 모르겠다.

1번.

표준 경선이 아닌 중앙 경선을 경도로 물어본 것이 특이하다.

2번.

여름, 겨울 비교. <보기>에서 여름인 것과 겨울인 것을 비교하는 것은 초등학생도 할 수 있겠으나 4개 중 2개를 택하는 구조 상 사실상 풍향 파악이 처음부터 끝인 문항이다. 그것도 별 의미없긴 한데.

3번.

특이사항 없음.

4번.

작년 사천보단 쉽다.

5번.

각주를 달아줄거면 벤 다이어그램이 필요없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그냥 말로 풀어서 줬다. 영동고속도로 기점이 인천이라는 사실 등 고속도로를 이렇게 낼 수 있다는 것이 좀 파격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몰라도 풀 수는 있으니까.. 나야 재밌지만 첫 페이지 치고 난이도가 있다.

6번.

소재가 특이하다. 3번도 그렇고 문제만 보면 09개정 지구과학1 문항인 줄.

7번.

ㅋㅋ 장난질이 도가 지나치다. 작수 토양 ㄱㄴㄷ부터 검색을 보이더니 무슨 생명과학1에나 등장할법한 충격적인 식생 단독 ㄱㄴㄷ 문항이다. 일단 ㄷ을 주고 가면서 정답이 5번이기는 한데.. 만약 수능 때 이런 식의 장난을 심화해서 변별할거면 한국지리는 안 하는게 맞다.

8번.

작수를 빼다박은 농업 문항인데 좀 더 어려운 것 같다.

9번.

이것도 작수와 비슷하다.

10번.

6모치고 나쁘지 않게 나왔다. 작년 수능만큼의 임팩트는 없긴 한데..

11번.

전반적으로 자연지리 문항들이 좀 색다른 것 같다. 구례군 선상지는 너무 많이 봐서 항공 사진은 반사적으로 고를 수 있을 것 같으나..

12번.

청양이 찍힌 것은 처음인 것 같은데, 홍성과 헛갈리지만 않으면 상관없다. 홍성만 잘 고르면 나머지 둘 중 하나만 알아도 답은 쉽게 나온다.

13번.

GIS + 지리지는 좀 참신하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14번.

이것도 작수 변형인데 대신 영남권인.

15번.

보통 수도권에만 찍었는데 소재가 고갈된건지 충청권까지 붙여두었다. 그래프 외 다른 자료도 없어서 제일 어려울 듯. 특히나 천안의 인구 변화는 생소할 수 있으니..

16번.

에너지를 잡는 것에 큰 무리는 없어보인다.

17번.

(라)가 강남인 것만 알아도 풀린다.

18번.

3차원 그래프 오랜만에 보는 것 같다. 다만 굳이 지역을 안 적어도 풀 수 있는 수준..

19번.

수도권의 공업 특징인데.. 여기서도 C가 의복인 것만 알아도 풀린다.

20번.

무슨 윤리 과목도 아니고.. 정말 불필요한 부분에서 타 과목 형식 차용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난이도가 높지도 않은데.